

# 삼성전자, 세계 TV '14년 연속' 1위...점유율 첫 30% 돌파

## IHS마켓 "2019년 삼성 금액 점유율 30.9%"...QLED 532만대 2500달러 이상도 52.4%로 1위...OLED TV 판매는 300만대

삼성전자가 지난해 프리미엄 제품인 'QLED TV' 판매 호조에 힘입어 14년 연속 글로벌 TV 시장 1위를 달성했다. 삼성전자의 2019년 QLED TV 판매량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며 전세계에서 530만대 이상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QLED TV와 화질 경쟁을 벌이고 있는 LG전자 주도인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TV는 지난해 전세계 판매량 약 300만대를 기록했다.

19일 시장조사업체 IHS마켓에 따르면 2019년 글로벌 TV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금액 기준 점유율 30.9%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2006년에 '보르도 TV'를 앞세워 일본의 소니를 제치고 글로벌 TV 시장에서 첫 1위를 달성한 이후 14년 연속 '왕좌' 타이틀을 지킨 것이다.

특히 삼성전자의 금액 기준 세계 TV 시장 점유율은 2017년

26.5%에서 2018년 29%, 2019년 30.9%로 지속해서 상승했다. 삼성전자의 연간 TV 시장 점유율이 3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량 기준에서도 삼성전자는 1위 자리를 지켰다. 판매량을 기준으로 집계되는 점유율 조사에서도 삼성전자는 전년보다 1.1%p(포인트) 오른 19.8%를 기록했다.

이는 삼성전자의 주력 프리미엄 제품군인 QLED TV 판매 호조 덕분에 분석된다. IHS마켓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전자는 전세계에서 QLED TV를 약 532만대 판매했다. 이는 전년 260만대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전세계 QLED TV 판매량(약 597만대)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89.2%에 달한다.

업계에선 삼성전자가 대화면·고화질 중심의 '프리미엄' 시장을 적극 공략한 것이 주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IHS마켓에 따르면

화면 크기 75인치 이상 글로벌 TV 시장에서 금액 기준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49.6%에 달한다.

또 단가 2500달러 이상 TV 시장에서도 삼성전자는 52.4%의 점유율로 과반을 기록했다. 2위 업체인 일본의 소니(24.7%)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업계 한 관계자는 "75인치 초대형 TV 시장에서 QLED TV가 약 82만대 판매된 반면 OLED TV는 5만6000여대에 불과해 판매량 차이가 15배에 달할 정도로 프리미엄 시장에서 격차가 벌어졌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TV 화질경쟁'을 벌이고 있는 LG전자는 금액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 16.3%를 기록해 2위를 기록했다. 점유율은 전년 대비 0.1%p 하락하며 큰 차이가 없었다. 수량 기준 점유율 측면에서도 LG전자는 12.2%를 달성해 중국의 TCL(9.2%)의 추격을 따돌리며 2위 자리를 굳혔다.



삼성전자의 2020년형 'QLED 8K' TV를 감상하는 사람들

그러나 2500달러 이상 프리미엄 TV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LG전자는 2019년 17.3%를 기록하며 3위에 그쳤다. 전년 대비 점유율이 4.3%p 떨어졌다. 지난해 LG전자

의 OLED TV 판매량은 약 166만대로 전년 대비 5.7% 증가했다. IHS마켓에 따르면 2019년 전세계 OLED TV 판매량은 약 299만 7600대로 전년 대비 19.2% 늘었

다. OLED TV 전체 판매량에서 LG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62.2%에서 지난해 55.2%로 낮아졌다. 일본의 소니와 파나소닉은 각각 22.4%, 10%로 뒤를 이었다.

## 6년만에 풀체인지 신형 쏘렌토 사전계약...3070만원부터



기아자동차는 오는 20일부터 4세대 쏘렌토의 플랫폼 및 파워트레인 정보를 공개하고 사전계약을 받는다. 2014년 3세대 출시 이후 6년만에 풀체인지를 거친 신형 쏘렌토는 3월 중 공식 출시될 예정이다. 신형 쏘렌토는 현대·기아차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최초로

신규 플랫폼을 적용했다. 콤팩트한 엔진룸 구조와 짧은 오버행, 긴 휠베이스가 특징이다. 동급 중형 SUV는 물론 상위 차급인 대형 SUV와 비교해도 경쟁력 있는 실내공간을 완성했다. 전장은 10mm 길어지고, 휠베이스는 35mm 늘어난 2815mm다. 아울러 신형 쏘렌토는 6인승 모델에

대형 SUV에만 탑재됐던 2열 독립 시트를 동급 최초로 적용하고 3열 시트 각도를 조절하는 등 탑승 편의성을 강화했다. 새 플랫폼 적용으로 충돌 안전성과 주행 성능도 개선했다. 경량화 소재를 통해 중량을 80kg가량 줄이면서도, 차체 골격을 다중 구조로 설계해 충돌 안전성을 강화했다. 트림은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와 디젤 등 2개 모델로 출시된다.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는 국산 최초의 중대형 하이브리드 SUV다.

최고출력 180PS(마력), 최대토크 27.0kgf·m의 엔진과 최고출력 44.2kW, 최대토크 264nm의 구동 모터가 조합됐다. 이를 통해 시스템 최고출력 230PS, 최대토크 35.7kgf·m의 힘을 낸다. 공인 연비는 리터당 15.3km(5인승, 17인치 휠, 2WD 기준)다.

디젤 트림에는 2.2L '스마트 스트림 D2.2' 엔진이 탑재된다. 현대차그룹 최초로 습식 8속

DCT 변속기를 적용했다. 최고출력과 최대토크는 각각 202PS, 45.0kgf·m다. 연비는 리터당 14.3km(5인승, 18인치 휠, 2WD 기준)다.

기아차는 향후 고성능 가솔린 터보 트림을 추가할 예정이다.

안전 사양으로 '다중 충돌방지 자동 제동 시스템'이 탑재된다. 주행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1차 충돌 이후 운전자가 일시적으로 차량을 통제하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차량을 제동하는 기술이다.

에어백은 앞좌석 센터 사이드 및 무릎을 포함해 총 8개가 들어간다. 기아차 최초로 제류 주유소 및 주차장에서 자동 결제할 수 '기아페이'가 탑재된다.

가격은 디젤의 경우 스텔렌디 3070만~3100만원 스프레스티지 3360만~3390만원 노블레스 3660만~3690만원 트시그니처 3950만~3980만원에 판매된다.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은 스프레스티지 3520만~3550만원 노블레스 3800만~3830만원 트시그니처 4070만~4100만원에 가격이 책정된다.

## 2020년 직장인 연봉 인상률 평균 5.3%

### 인크루트, 18일 자체 설문조사 결과 발표

직장인 절반이 이번 연도 연봉 협상을 마친 가운데 연봉 인상률은 평균 5.3%, 평균 연봉 인상액은 150만4000원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바로면접 알바업 알바콜은 19일 직장인 139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설문 조사는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이뤄졌다.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 가운데 올해 연봉협상을 마쳤다고 답한 비율은 50.3%로 연봉협상은 주로 지난 1월에 진행됐다.(50.1%)

연봉협상 결과 '전년대비 올랐다'고 답한 비율은 68.3%, '지난해와 같다'고 답한 사람은 28.3%였다. 지난해보다 삭감된 응답자는 전체의 3.4%였다.

협상결과를 기업의 규모에 따라 살펴보면 대기업(종업원수 1천명 이상~)의 76.4% 중소기업(종업원수 299명 이하)은 67.3%

△중견기업(종업원수 300명~999명)의 66.7%가 연봉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결' 비율은 △중견기업(31.3%) △중소기업(28.2%) △대기업이 22.6% 순이었으며 '삭감' 비율은 △중소기업 4.5% △중견기업 2.0% △대기업 0.9% 순으로 집계됐다.

연봉의 인상률은 5.3%으로 전년 동기 조사결과였던 4.0%보다 1.3%p 높아졌다. 기업규모별 인상률은 중소기업이 5.5%로 가장 높았고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4.9%로 동일했다. 평균 연봉 인상액은 150만4000원으로 기업별로는 대기업 203만8000원, 중견기업 151만6000원, 중소기업 139만9000원 순으로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이는 직장인들의 희망 인상률 10.4%, 희망 인상액 269만원에는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 롯데 '홍현희 빵' 벌써 3만개 팔려

롯데제과는 지난 1월 선보인 병동 베이커리 '생생빵상회'가 출시한 달만에 판매를 넘어섰다고 19일 밝혔다.

별도의 조리도구 없이 에어프라이어나 전제레인을 활용, 오랜 시간을 들이지 않고 간편하게 조리해 주석에서 따뜻한 빵을 먹을 수 있어 인기를 얻었다는 게 롯데제과의 설명이다. 조리 시간은 약 30초~2분 가량이다.

최근 방영된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개그맨 홍현희가 생생빵상회 제품을 먹는 장면이 나오자 인기가 급상승했다. 네티즌들 사이에선 이른바 '홍현희 빵'으로 불린다.

롯데제과는 "생생빵상회 라인업을 양하게 출시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 활동을 준비하여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1

## 24년만에 캐나다 진출하는 토종 삼계탕

캐나다에 토종 삼계탕이 처음으로 수출된다. 우리 정부가 지난 1996년 캐나다에 삼계탕 수입을 요청한 이후 24년만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0일 캐나다에 삼계탕 제품을 첫 수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달을 시작으로 올해 총 80톤(6억원)의 물량이 캐나다로 수출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96년 캐나다 정부에 삼계탕 수입을 요청했다. 이후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공동으로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과

20년 넘게 관련 논의를 이어왔다.

세계무역기구(WTO) 최고기 분쟁 등으로 6년간 협상이 중단되기도 했다. 그러다 2018년 캐나다 정부의 국내 수출작업장에 대한 현지 실사가 이뤄지면서 수출 절차가 진행됐다.

이러 양국은 지난해 12월 '삼계탕 수출위생조건 및 수출위생증명서'에 최종 합의했다.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이 마니케에프앤지와 하림 공장을 수출 작업장으로 승인하면서 수출길이 열렸다는 설명이다.



이른봄 깨우는 봄나물 모음전 '19일 서울 용산구 이마트 용산점에서 모델들이 봄나물을 선보이고 있다. 이마트는 이날부터 1주일 동안 청도미나리(1봉 2,980원)와 냉이(1봉 1,980원), 달래(1봉 1,480원) 등 각지에서 생산된 봄나물을 모아 '봄나물 모음전'을 실시한다.